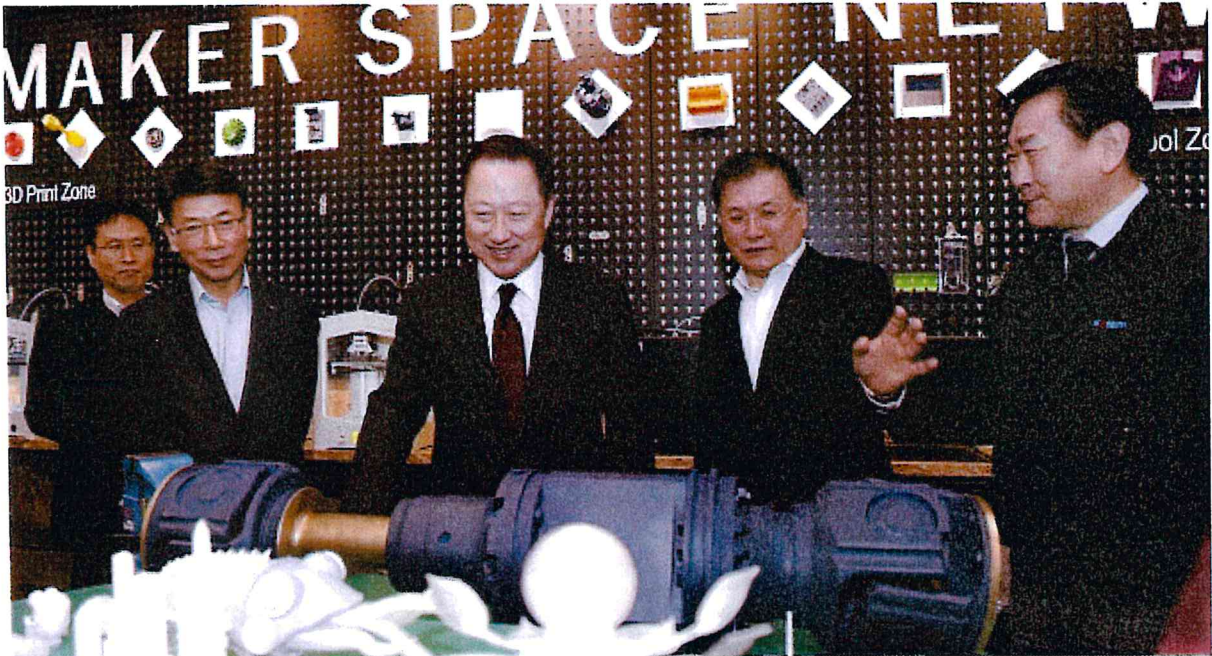


정상방문 라오스 최초 경제사절단 발표...총 81개사 82명 명단 확정

최종수정 2016-09-02 14:03



▲박용만(가운데) 대한상의 회장(두산그룹)

산업통상자원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라오스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명단을 1일 발표했다.

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사절단은 라오스 최초의 정상수행 경제사절단이다. 대기업 12개, 중소·중견 50개(참가기업의 81%), 공공기관·단체 19개 등 총 81개사 82명으로 구성됐다.

업종별로 기계장비·자재 13개, 소비재·유통 11개, IT·보안 6개, 전기·전자 5개, 자동차·부품 5개, 플랜트·엔지니어링 5개, 농식품 5개 등 각 분야의 기업이 포함됐다. 라오스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약 100개, 양국 교역규모는 지난해 1억9800만 달러 수준이다.

경제사절단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-라오스 비즈니스 포럼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최하는 1:1 상담회 등에 참가한다. 이는 아세안 국가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정상수행 1:1 상담회다. 라오스 인근 국가(태국, 베트남 등)에서도 바이어를 초청해 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.

상담회는 8일 비엔티안에서 개최되며, 총 41개의 국내기업이 참여한다.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도 22개사가 참가를 신청했다.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4개사도 참여한다.

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협조해 현지 시장특성을 고려한 경제인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.

다음은 라오스 경제사절단 명단이다.

△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, 이동근 부회장 △전국경제인연합회 박찬호 전무 △한국무역협회 김정관 부회장 △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 △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 △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재홍 사장 △대구상공회의소 및 삼익THK 진영환 회장 △창원상공회의소 및 경남스틸 최충경 회장 △성남상공회의소 및 이디 박용후 회장(대표) △서울중부염색공업협동조합 나영식 이사장 △한국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이규대 회장 △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곽기영 이사장 △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사장 △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 △한국수입협회 신명진 회장 △한국수출입은행 이덕훈 은행장 △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무경 회장 △한국재책공업협동조합 이상훈 사장 △한국플랜트산업협회 영동관 부회장 △디엘아이 문홍성 사장 △롯데리아 노일식 대표이사 △삼성전자 박상진 사장 △씨제이대한통운 박근태 대표이사 △에스케이건설 조기행 사장 △엘지상사 송치호 대표 △진에어 최정호 대표이사 △케이비캐피탈 박지우 대표이사 △한국서부발전 조인국 사장 △한화케미칼 김창범 사장 △현대자동차 정진행 사장 △효성 조현상 부사장 △고려전선 정용호 대표이사 △금호 이영희 대표이사 △농협회사법인 도담 정순오 CEO △네이버 김상현 사장 △네브레이코리아 한상권 사장 △니트로소프트 최종복 대표 △동신폴리켄 장현봉 사장 △두리기업 장진혁 과장 △로스팅컴퍼니 로움 이동희 대표 △로자인 신성철 기술이사 △미래비전통상 강호정 사장 △바이오월드 임영춘 대표 △바이오컨셉 김영재 CEO △보광직물 손영익 이사 △보우실업 김명자 회장 △뷰티클라겐 이경숙 대표이사 △삼덕상공 김권기 사장 △석우종합건설 장순봉 대표이사 △성진레미콘 양영남 회장 △신성솔라에너지 이상권 전무 △신화의료기 황나은 해외마케팅 총괄이사 △아세아텍 김신길 사장 △아이존 장석중 대표 △에이스엔지니어링 유인선 대표이사 △에코솔라텍 정웅섭 대표이사 △에코팩키징연구소 권기범 대표 △에코힐링 윤중호 회장 △엠엔지이엔티 안성주 대표 △애플애드벤처 장기진 대표이사 △영일엔지니어링 이창은 대표이사 △영전엘리베이터 김효식 대표 △와이앤제이코리아 최정기 전무 △유케이비 김진만 대표 △이누크코리아 전시우 사장 △인텍 양용만 부사장 △자연지애 반명숙 사장 △정인무역 장인호 사장 △제일산업개발 고중하 법인장 △좋은차닷컴 남준희 사장 △지오씨엔아이 조명희 회장 △케이디에프 박성기 이사 △케이씨이피 중공업 윤성운 차장 △코스코 박미라 사장 △크린아이 송영심 사장 △테크노빌리지 유인목 대표 △포스테크 고종철 사장 △푸드야 식품 장준호 사장 △피앤비 김정례 사장 △호수산업 최현식 부장 △희림종합건축사무소 정영균 총괄대표.

세종=이정필 기자 roman@etoday.co.kr

<저작권자 © 이투데이 무단전재/재배포 금지>

 이 기사 주소 <http://www.etoday.co.kr/news/section/newsview.php?idxno=1378751>

[취소](#)